

# 신한제13호스팩 상장 '단타 주의' 원금 손실 없지만 자금 묶일수도

공모 청약경쟁률 1724.63 대 1  
장 열린 직후 203.50% 올라  
증가는 2195원... 쭉 하락세  
"단타 수익 노력도 위험성 큰 시장"

미국 금리와 중동 지정학적 갈등으로 증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신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팩이 이른바 하루짜리 '단타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제13호스팩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스팩은 타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주식회사로 일종의페이퍼컴퍼니다. 신한제13호스팩의 확정 공모가는 2000원이며 공모 청약경쟁률은 1724.63대 1을 기록했다.

신한제13호스팩은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이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 융합 나노 융합 등에 속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또한 해당 업종에 속하지 않는 우량



신한제13호스팩 22일자 차트. /토스증권

회사와도 합병 추진이 가능하다.

신한제13호스팩은 상장 첫날 장이 열린 직후 203.50% 상승한 607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증가는 2195원으로 꺾였다. 오전장이 하락하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는 쭉 하락세를 보이며 4000원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증가는 '파블'(공모가격의 2배)에도 못 미친 셈이다.

투자 커뮤니티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할까? 팔 시간을 놓쳤다", "원금 손실은 없지만 한동안 자금이 묶였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스팩이 '초단타 매매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팩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합병 회사의 이름으로 재상장하게 되면 다시금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상장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투기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주가가 높은 스팩에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지만 상장 첫날 주가 급상승은 최근 스팩 상장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

스팩주는 상장 후 3년간 인수합병(M&A)을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그럼에도 원금은 손실되지 않고 공모가에 이자도 3% 내외로 받을 수 있다. 안전한 투자처이긴 하지만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일 수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단타 수익을 노린다고 해도 위험성이 큰 시장"이라면서 "스팩 자체로도 주가가 너무 오르면 합병 대상을 찾기 힘들기에 이러한 현상이 기업에도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外人 이탈 우려에도 '밸류업' 반등세

은행·증권·자동차 지수 모두 올라  
주주 이익보장 등 與野 공감대 형성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 가능성 보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밸류업 '큰손'이었던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관련주들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선 이후 대표적인 저주가수자산비율(PBR) 주가 담긴 KRX은행, KRX증권 등의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들은 총선 이후 19일까지 각각 6.16%, 6.46%씩 떨어졌다. 반면, 수출주인 현대차와 기아가 담긴 KRX 자동차 지수는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과는 별개의 변수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평균이 대체로 유지됐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결과를 의식하면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밸류업이션이 받쳐주는 자동차, 배당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기밀 구석이 있어 조정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 지수 모두 22일에는 KRX은행 6.13%, KRX증권 4.85%, KRX자동차 2.72%씩 오르면서 반등 기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 이탈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밸류업 수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수급은 외국인이었다"라며 "밸류업 관련주에서 외국인의 수급만큼 연기금의 매수세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7805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은 7886억원을 사들였다.

외국인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강세로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셀 코리아'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적주에 대한 선호는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자동차주에 대한 선호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된 모습이다.

총선 직후인 11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3조1744억원 가량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2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은행주 역시 높은 주주환원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선호가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다수의 금융사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응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과 물적 분할 제한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등은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은행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투심 변화는 여전히 주목된다. 1분기 밸류업 강세를 주도하며 3월 말까지 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지난주 18일을 제외한 4거래일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다. 특히 선물시장에서의 순매도세의 여파가 크다. 외국인은 지난 3일 이후 선물시장에서도 6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다만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PCE, 4월 26일) 결과가 시장 예상치대로 둔화된다면 물가 및 통화정책 불안심리 진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 외국인 선물매수, 코스피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 자산운용사, 제살 깎는 수수료 인하경쟁

삼성자산운용, 국내 최저수준 인하  
ETF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목표  
수익 악화로 전체 경쟁력 약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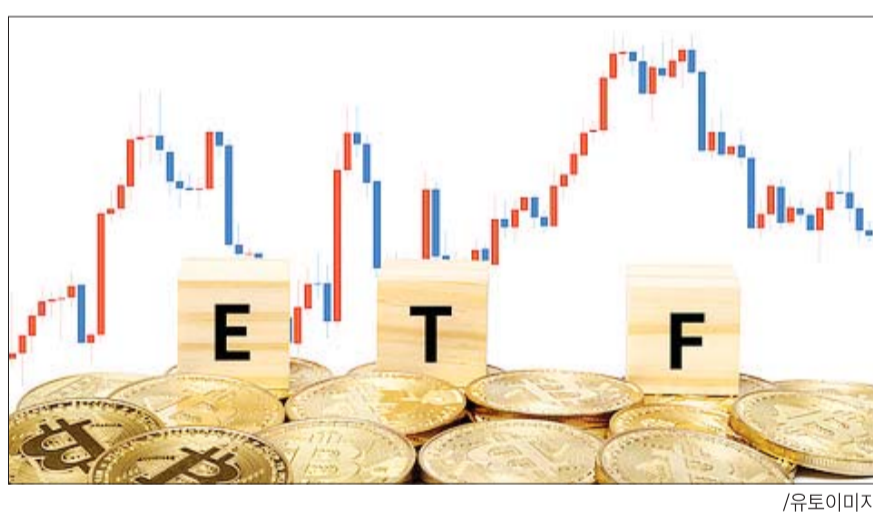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수수료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에 대형 자산운용사까지 본격적으로 인하 경쟁에 가세하면서 자산 운용사들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0.01%대로 인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나오는 등 수수료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운용은 지난 19일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4종에 대한 수수료를 연 0.05%에서 국내 최저 수준인 0.0099%로 인하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 원이 채 안 되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운용 ETF사업부문장 부사장은 "ETF시장 선도운용사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장기 적립식 투자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최대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대표 지수 4종에 대한 보수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운용이 ETF 시장 점유율 1위 유지를 위해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운용은 2020년까지만 해도 시장 점유율 50%를 웃돌며 국내 ETF 시장을 선도했으나 경쟁사들의 추격으로



/유토이미지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점유율은 39.39%로 2위 미래에셋운용(36.85%)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다른 상품들 보다는 ETF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국 대표 지수 추종 ETF에 대한 보수 인하는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소형사가 비즈니스 진인목적으로 보수 인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업계 1위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인하는 것은 미래에셋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 따른 대응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들의 제살깎기식 치킨게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면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용사들의 수수료 인하 마

케팅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ETF 시장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익 악화로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축소돼 ETF 상품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보수 인하시, 당장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건전한 ETF 시장 발전과는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원가절감으로는 제품의 퀄리티를 올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적절한 보수를 받고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대신증권, '대신 프렌즈' 20명 모집

판매 상품 대한 의견·아이디어 제시

대신증권이 금융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참여제도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은 판매 중인 금융 상품, 서비스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온라인 고객패널인 '2024 대신 프렌즈'를 20명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프렌즈로 선정된 고객은 5월부터 약 4개월간 대신증권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온라인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다.

고객패널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 건별로 최대 10만원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패널로 선정되면 상금이 제공된다. 상금은 1등 50만원(1명), 2등 30만원(1명), 3등 20만원(2명)이다.

'2024 대신 프렌즈'는 대신증권 상품



/대신증권

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30일까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대상자는 5월 10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패널 제도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